

단국대학교 201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인문계열 문제 및 답안
(오후)



[문제 1] 다음의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30점)

- 1) [가]에서 자연의 생물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요약할 수 있는 두 단어로 된 문구를 찾고, 그 문구에 기초하여 이 글의 내용을 요약하십시오. (300자 내외) (15점)
- 2) [가]에 토대하여 [나]에서 자연을 대하는 백인들의 태도를 요약 설명하고, [다]에서 자연을 대하는 필자의 태도를 요약 설명하십시오. (300자 내외) (15점)

[가] 잡풀은 잡풀끼리 어울려 산다
 갖가지 모양새, 수수한 차림새
 오가는 길손이야 보든 말든
 바람 부는 대로 하느작이는 몸짓

가느다란 잎들이 어깨를 비빈다
 이름 없는 꽃들이 미소를 짓는다
 머리를 맞대고 소곤거리는
 잡풀 이야기 하냥 즐겁다

거목은 아니어도 거목의 꿈
 생명의 빛을 세상에 펼친다
 푸르게 그러나 조용히 설레면서
 잡풀은 잡풀끼리 어울려 산다

출처: 고희진 외, 『고등학교 문학 II』, 천재문화, 2012, 91쪽.

[나] 우리는 우리 땅을 사겠다는 그대들의 제의를 고려해 보겠다. 그러나 제의를 받아들일 경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즉 이 땅의 짐승들을 형제처럼 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미개인이니 달리 생각할 길이 없다. 나는 초원에서 썩어 가고 있는 수많은 물소를 본 일이 있는데 모두 달리는 기차에서 백인들이 총으로 쏘고는 그대로 내버려 둔 것들이었다. 연기를 뿜어내는 철마가, 우리가 오직 생존을 위해서 죽이는 물소보다 어쩌서 더 중요한지를 모르는 것도 우리가 미개인이기 때문인지 모른다. 짐승들이 없는 세상에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모든 짐승이 사라져 버린다면 인간은 영혼의 외로움으로 죽게 될 것이다. 짐승들에게 일어난 일은 인간들에게도 일어나게 마련이다. 만물은 서로 맺어져 있다.

출처: 박종호 외, 『고등학교 문학 II』, 창비, 2012, 335쪽.

[다] 우리는 동물이 죽어 썩어 가는 것을 보면 메스껍고 언짢아하지만, 독수리가 그 시체를 뜯어 먹으며 힘을 얻는 것을 보면 차라리 잘 되었다는 생각을 한다. 내 집에 이르는 길옆의 파인 곳에는 말 한 마리가 죽어 넘어져 있었는데, 이 때문에 나는 때때로 길을 돌아가야만 했고 밤이 되어 냄새가 심하게 풍길 때에는 더욱 그러했다. 그러나 그것은 대자연의 왕성한 식욕과 침범할 수 없는 건강을 나에게 확인시켰으며 나는 그로부터 어떤 위안을 받았다. 대자연이 생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상당수가 희생되거나 서로를 잡아먹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것이 차라리 다행스럽게 여겨진다.

연약한 생명체가 펄프처럼 짓눌려 없어지더라도, 예를 들면 왜가리가 올챙이를 통째로 삼킨다든지, 길 위에 거북이와 두꺼비들이 마차에 치어 때로는 즐비하게 죽어 넘어지더라도, 자연은 그것을 허용할 여유가 있는 것이다.

출처: 정재찬 외, 『고등학교 문학 II』, 천재교과서, 2012, 77쪽.

[문제 2] 다음의 제시문 [가]와 [나]를 활용하여 제시문 [다]의 ‘전통 사상’ 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각각 서술하십시오. (600자 내외) (30점)

[가] 제법 성공한 화가인 내 친구 아멜리아가 며칠 전 전화를 했다. …(중략)… 한 달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유산 다툼으로 집안이 뒤죽박죽이라는 얘기였다. 이슬람 율법은 아버지가 죽으면 남성 자손이 유산의 3분의 2를, 여성 자손이 3분의 1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아멜리아 부모님은 오래전부터 아멜리아와 남동생에게 유산을 똑같이 주겠다고 말해 왔다. 아멜리아는 “유산을 똑같이 나눠 달라.” 고 말은 안 했지만 부모님 뜻이 그러니 그렇게 되겠거니 생각했다. …(중략)…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아멜리아 남동생 밤방이 “이슬람법대로 유산을 나눠야 한다.” 고 주장하고 나섰다. 가족을 부양할 책임이 있는 남자가 더 많이 받아야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어머니도 처음에는 “어릴 적 어머니(아멜리아의 외할머니)가 ‘금쪽같이 귀한 아들’ 을 편애해서 몹시 마음이 상했는데 다행히 아버지는 아들딸을 평등하게 대해 주셨다.” 고 말씀하시며 당신 아버지께서 하신 대로 아들과 딸에게 재산을 똑같이 주겠다고 버텼다고 한다. 그런데 석 달 사이에 갑자기 상황이 뒤집혔다. 어머니는 “생각해 보니 아버지가 잘못하셨던 것 같다.” 며 생각을 바꾸셨다. 어머니가 “코란” 공부를 시작하셨는데, 선생이 “이슬람법을 안 지키면 타계한 남편과 당신 모두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 라고 했다는 것이다.

출처: 윤여탁 외,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II』, 미래엔, 2011, 347쪽.

[나] 살아 있는 모든 창조물들이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자연이나 초자연적인 힘들은 ‘신(神)’ 이라고 불렀는데 그것들은 모든 사물의 근원이라고 불렀다. 이런 방법으로 해서 시간과 죽음은 원주민 세계를 움직이는 축으로 바뀌었고 신들은 모든 선과 악의 효과인(效果因)으로 바뀌었다. 신들로부터 선택된 자들은 전쟁 시나 평화 시에 신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시간을 예언하며 죽음을 관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왕들이나 사제들, 그리고 전사들은 아메리카 대륙의 빈 공간을 지배할 수 있었다. 그들은 제사의 중심이 되는 장소를 건설하라고 명령했는데, 그것은 신들의 무서운 양면성이나 신들이 구현하고 있는 자명한 진리를 기리는 신전으로 바뀌었다. …(중략)… 이와 같은 믿음들은 메소아메리카 문명이 밝은 일련의 길로서, 기원전 6,000년 전의 초기 수렵 시대로부터 농경 생활이 시작되고 기원전 1,500년경에 촌락 생활을 시작할 때까지, 그리고 기원전 900년경 멕시코 만 연안의 파팔로아판 분지에 살았던 올메카 족의 모성(母性) 문화가 출현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촌락 문화는 곧 연안부에서 중앙 멕시코의 고원, 사포텍 족이 거주하는 오악사카 분지로 옮겨져서 기원전 3세기 경에서 1세기까지 마야 문명의 최초의 징후로 발전해 나갔다.

출처: 이남호 외,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II』, 비상교육, 2011, 265-266쪽.

[다] 우리 주변에는 조상이 남겨 놓은 유산 중에서 유용하고 가치 있는 것이 많이 있다. 여기에는 물질적인 유산 이외에도 우리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데 이바지한 정신적인 유산도 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통틀어 ‘전통(傳統)’ 이라고 부른다. ‘전통’ 이란 말은 전하여 이어져 내려온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해, 전통은 시간의 연속성을 의미하며, 과거로부터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역사성을 가진다. ‘사상(思想)’ 이란 삶의 원리나 원칙을 의미한다. 이것은 구체적인 사고나 생각을 가리키며, 판단과 추리를 거쳐서 생긴 통일된 판단 체계를 말한다. 따라서 ‘전통 사상’ 은 과거에 지배적으로 통용되었던 삶의 원리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오늘날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신적 자산이다.

출처: 박찬구 외,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천재교육, 2011, 46쪽.

[문제 3] 제시문 [가]와 [나]를 근거로 [다]가 의미하는 것을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라]의 ‘랭스 턴 휴스’가 보인 삶의 태도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시오. (600자 내외) (40점)

[가]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 워튼 스쿨의 경제학 교수인 스티븐슨과 울퍼스는 세계 각국의 ‘구매력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GDP)’과 ‘삶에 대한 만족도’를 비교·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소득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소비 생활을 통해 물질적인 삶의 조건을 개선시키고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적절한 소득을 확보하지 못하면 건강, 지적인 활동, 여가, 이웃과의 관계, 안전 등 삶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질 높은 삶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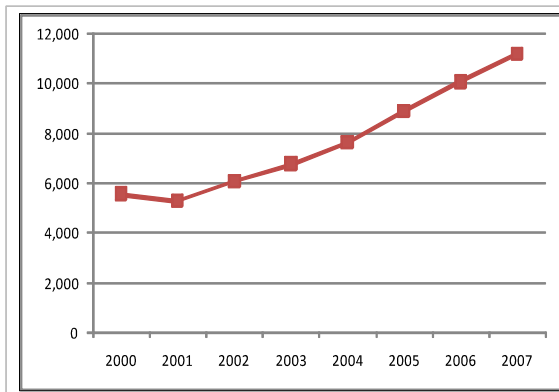
출처: 최병모 외, 『고등학교 사회』, 미래엔, 2013, 239쪽.

[나] 예를 들어, 경제 성장 과정에서 수돗물이 오염되었다고 하자. 그러면 사람들은 수돗물 대신 시장에서 생수를 사서 먹을 것이다. 이때 생수의 판매 가치는 국내총생산에 포함되어 경제 성장에 기여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졌다고 말하기 어렵다. 또한, 경제가 성장하였더라도 그 성장의 결과가 일부 계층에게 편중된다면 빈부 격차의 확대와 그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의 심화로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 이처럼 삶의 질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경제 성장이 필요하지만, 경제 성장이 항상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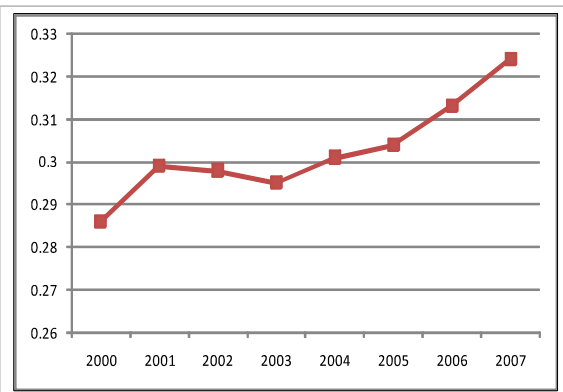
출처: 서태열 외, 『고등학교 사회』, 금성출판사, 2013, 288쪽.

[다] 한국의 국내총소득(GNI) 추이 및 지니계수 추이

< 한국의 국내총소득(GNI) 추이(억 달러) >



< 한국의 지니계수 추이 >



출처: 통계청.

* 지니계수란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수로서 0과 1 사이의 값을 나타내며 1에 가까울수록 불공평하게 분배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0.4 이상이면 소득분배가 매우 불평등하다고 평가된다.

출처: 박병익 외, 『고등학교 사회』, 천재교육, 2013, 255쪽.

[라] “우리는 빵을 원한다. 그러나 장미도 원한다.” 이 구호는 1908년, 미국 뉴욕 방직공장에서 남성성에 비해 절반의 임금밖에 받지 못하던 여성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에서 나온 구호였다. 경제적 상황이 어려울수록 빵(생존권)이 강조되면서 장미(인권)는 빵을 위해 희생되어도 좋은 것으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시인 랭스턴 휴스는 “내일의 빵으로는 나는 살 수가 없다.”라며, 풍요로운 미래의 약속을 거부하고 단호하게 ‘오늘의 자유’를 선언하였다.

출처: 류재영 외, 『고등학교 사회』, 천재교육, 2013, 286쪽.